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남 함평 이전 확정

월야면 빛그린산단 50만㎡ 대상  
2024년까지 해보농공단지 확장  
연관기업 유치 등 배후시설 마련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2공구.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단 일원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함평군이 오랜 기간 공들인 대형 기업 투자유치 성과가 빛을 보게 됐다.

함평군은 9일 “금호타이어(주)와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신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12월 30일 체결했으며, 금호타이어는 LH 측에 공장 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지난 6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전하는 토지는 빛그린산업단지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약 50만㎡를 대상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빛그린산단 일원에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게 되며, 대규모 고용창출에 기여할 방

침이다. 공장 이전이 확정되면서 군은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TF팀’을 신설, 금호타이어 입주 시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GGM과 금호타이어 등 앵커기업(협력사들의 연쇄 입주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주 선도 기업)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과 근접한 해보농공단에 확장(변경) 조성사업을 실시

하게 된다. 오는 2024년까지 종전 24만5천㎡의 해보농공단을 50만㎡까지 확장, 자동차 산업 연관 기업 유치 등 배후 산업시설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함평군의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앞서 군은 지난해 1월 금호타이어

로부터 빛그린산단 입주의향을 받았으며, 실무 부서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와 동시에 금호타이어 함평권역 이전이 함평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광주광역시와 금호타이어 간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물밑 협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 등과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군은 빛그린산단 일원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농업군이었던 함평은 자동차 제조기업의 잇따른 유치를 통해 산업 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함평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단 이전으로 함평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맞을 것”이라며 “이후 공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함평(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상주 꽃감·배 베트남 수출 꽃감 1.4억 등 2.4억 규모

경북 상주 특산물 꽃감과 배가 올해 첫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9일 상주시에 따르면 아자개영농조합법인(대표 정태식), 두릉골배영농조합법인(대표 박호철)은 꽃감과 배 수출 선적식을 했다. 수출 길에 오른 꽃감은 9.6t(1억4000만원)이며 배는 32t(1억원)이다.

수출업체인 ㈜오리엔트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됐다. 상주 꽃감과 배는 베트남 현지 한인 마트인 감남마트에서 판매된다.

/상주(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경북도, 지역 중소기업 대상 설 특별자금 1200억 지원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건비, 자재 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1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26일까지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 자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있는 시군청 방문 또는 및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까지 취급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농어민 공익수당 100% 인상 화순군, 올 120만원씩 지급

전남 화순군이 기존 연 60만원씩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해 올해부터 120만원씩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농어민수당을 12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은 화순군이 유일하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현재 대비 40%, 시·군비 60% 재원으로 가구당 60만원씩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순군이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해 12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주 복구 청년공작소 입주기업 모집

광주시 복구는 오는 28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청년공작소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마을공방 육성사업’과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청년공작소 입주 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기간이 5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10개의 청년기업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공간 무상 이용,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추진 전남도 ‘걷기 명소’ 만든다

총 4544km,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  
‘체류형 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

전남도는 서해랑길과 남파랑길 등 국도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을 전남만의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걷기여행 명소로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km에 이르는 국내 최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 동해의 해파랑길, 비무장지대의 DMZ 평화누리길로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국가사업이다.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부터 해남 땅끝전망대까지 총 1470km 여행길이다. 이 중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의 43개 코스 732.1km가 전남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0월 개통해 운영 중이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서해랑길은 해남 땅끝마을부터 인천 강화까지 총 1800km 여행길이다.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의 40개 코스, 687.8km가 전남 구간이다.

전남지역 코리아둘레길은 총 83개 코스 1420km에 달한다.

전남도는 코리아둘레길을 관광과 지역문화를 연계한 핵심자원으로 가꾸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9개 시·군이 참여해 남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유튜브 활용 홍보 콘텐츠 운영 등 둘레길 조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 내 둘레길 코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 체류형 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모니터링

개선방안 도출, 개선·반영키로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개통된 중앙대로 서면 광무교~충무동 자갈치교차로 구간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교통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의뢰해 해당 구간의 교통 상황을 분석키로 했다. 모니터링은 약 8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교통 불편사항과 자문단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을 수시로 파악해 즉시 개선·반영함으로써,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4일, 경찰, 도로교통공단, 버스조합 관계자 등과 함께 서면 광무교~충무동 자갈치교차로 7.9km 전 구간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구간을 도보로 직접 이동하면서 교통흐름과 안전 위해요소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석구석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박준현 부산시장의 특별 지시로 시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진주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금산면·가호동 2곳에 조성

경남 진주시 금산면과 가호동 등 2곳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금산면과 가호동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직매장 지원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진주 금곡농협과 진주 금산농협 등 2곳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국비 12억원 등 총 6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진주금곡농협과 진주금산농협에는 각각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 공유부엌 등을 포함한 로



조규일 진주시장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가호동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시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중소·고령·여성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 사업비를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주(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경북도, 올 재해예방사업에 2017억 투입

경북도가 지난해 1817억원보다 200억원(11%) 늘어난 2017억원(국비 1009억 포함)으로 올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주요 재해 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70지구) 1161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8지구) 31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21지구) 23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18지구) 86억원 ▲우수저류 시설 설치(5지구) 138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6지구)에 89억원 등으로 추진

된다. 도는 지난해 8월에 내습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쓰’로 피해가 난 포항지역에는 재해위험 개선 지구 4곳(자호천, 현내천, 가사천, 골안천)을 지정하고 추가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재해위험 개선지구(청도 운문지구) 국비 10억원, 재해위험 저수지(성주 중리지구) 국비 7억원 등 국비 47억원의 국회 증액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